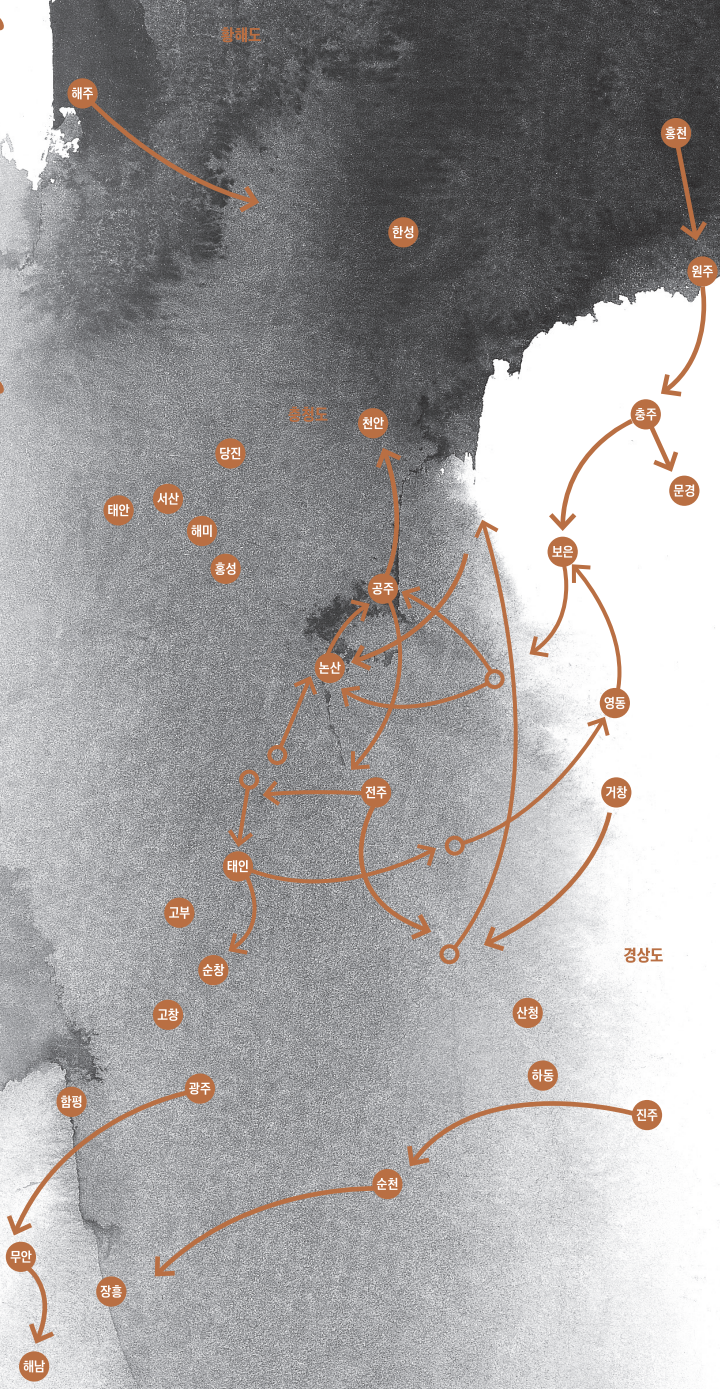


녹두꽃

2023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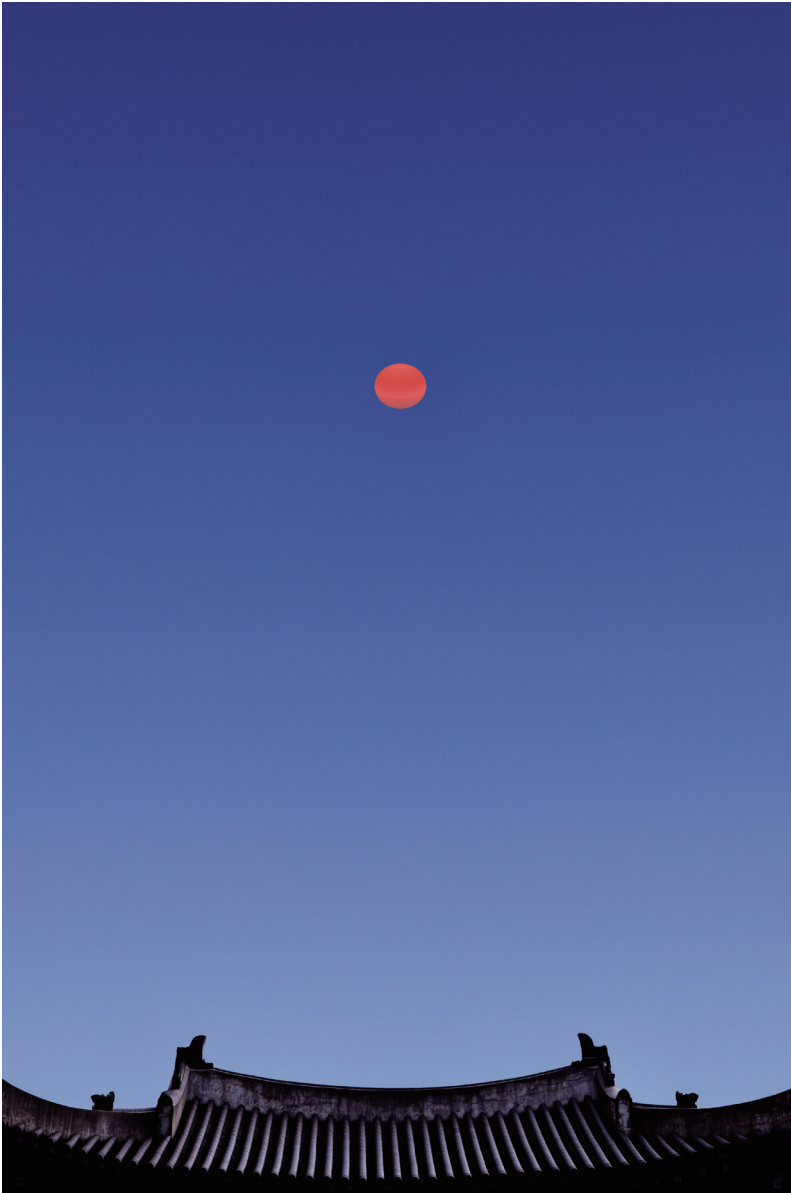
53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은
기강이 있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다. 거짓말하고 마음을
속이는 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일본의 도둑들이 군대를
움직여 우리 임금을 꺾박하고 우리
백성들을 걱정스럽게 하니 이에
힘을 단 만일가. 임진왜란의 원수들
조선의 일부나 이만개까지도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기억하는데
하물며 각하는 조정의 녹을 먹는
충신이니 우리 무지렁이들보다
몇 배 더하지 않겠는가.

지금 조정대신들은 망령되고
구차하게 자기의 안전에만 빠져서
위로 군부를 헐박하고
아래로는 인민을 속여
일본 군대와 손을 잡아
삼남의 인민들에게 원한을
불러오고 임금의 군사를 움직여
선왕의 힘없는 백성을 헤치려 하니
진실로 무슨 의도이며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은 지극히
어렵겠지만 일편단심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의 신하로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쓸어 조선
500년의 은혜를 갚으려 한다.
각하는 크게 누우쳐서 대의를
위해 함께 죽는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함성 김갑련 | 사진 60x85cm, 2023

작품설명

동학농민혁명을 사진으로 재해석한 김갑련 작가의 「함성」이라는 작품이다. 동학농민군은 1894년 정월 고부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무장기포, 백산대회, 황토현전투, 황룡전투 등을 거쳐 마침내 4월 27일(양력 5. 31.) 전라도 수부(首府)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그로부터 129년 후 전라감영 풍남문과 그 위에 뜬 붉은 해를 '함성'이라는 주제로 렌즈에 담아낸 작가의 눈이 매섭다. 바탕의 푸른 빛에서는 동학농민군의 결기가 느껴지고, 붉은 해에서는 동학농민군의 뜨거운 열정과 함성이 우렁차게 들려온다.

김갑련

사진작가,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차장. 개인전으로 「꽃밥」(전북문화관광재단 초대전, 교동미술관, 전북 전주, 2023.), 「건지나無」(티라이프, 전북 전주, 2022.) 등이 있으며, 단체전으로는 「풍경사진 페어링」(디자트가구 백화점 특별전시장, 전주, 2023.), 「인천개항장국제사진영상페스티벌」(인천, 2022.), 「천천히 그리고 표현으로」(전북도립미술관 상설전시실, 전북 전주, 2021.) 등이 있다.

녹두꽃

2023

가을

53



표지설명

전봉준 장군이 '양호창의영수(兩湖倡義領袖)' 명의로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보낸 편지를 바탕으로 2차 봉기를 단행한 동학농민군의 전국적인 활동 상황을 도식화(圖式化) 하고 그들의 추상적인 감정을 시각화하였다.



『녹두꽃』을 전자책으로 만나 보세요.

구독신청 ☎ 063 530 9416

차례

| | |
|---|----|
| 녹두칼럼 | 02 |
| 정선원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 | |
| 포토토픽 | 04 |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 |
| 뉴스초점 | 10 |
|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확산을 위한 공청회 2023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워크숍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잭버리' 대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방문 | |
| 재단 포커스 | 16 |
|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 워크숍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개소 및 현판식 2023년 동학농민혁명 신진 연구자 워크숍 2023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 학술대회 | |
| 기획연재 | 20 |
| 그림에 담긴 갑오년의 이야기 3 | |
| 참여자 유족인터뷰 | 26 |
| 강성진 참여자 강영희의 고손자 | |
| 인권과 평화 | 32 |
| Daniel Kang(대니얼 강) 재미교포의 동학농민혁명공원 방문기 이봉화 외 3 대학생 눈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 |
| 지면전시紙面展示 3 | 38 |
| 동학농민혁명 전시관(박물관) | |
| 지역대담 | 42 |
| 전성준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 | |
| 지역단체 포커스 | 48 |
| 전국 기념단체 행사 | |
| 교육·체험, 방문단체 | 50 |
| 녹두꽃, 다시 피다 | |
| 2023년 교육체험·해설 안내 | 54 |
| 박물관, 기념공원, 기념관 프로그램 | |
| 보도기사 색인 | 55 |
|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 |

통권 53호 발행일 2023년 10월 1일 발행인 신순철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소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063 530 9400 팩스 063 538 2893
이메일 1894@1894.or.kr 홈페이지 www.1894.or.kr 편집디자인·제작 두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공주

공주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1993년 우금티(‘우금치’를 공주 사람들은 우금티로 부름. 이하 우금티로 표기) 바로 옆에 주유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반대로 여러 시민단체와 인사들이 모이면서 시작되었다. 공주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전국에서 유족회가 활동하고 있었고, 또한 많은 지역에서 기념사업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공주가 전국에서 모이기에 편리한 지역이었고, 남북접의 동학농민군이 함께 모여 투쟁했던 장소라는 성격 때문인지 공주에서 여러 차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련 전국적 모임이 있었다.

공주에 오셨던 이이화, 표영삼 선생님의 기억이 생생하다. 공주기념사업회를 대표했던 진영일 선생님(당시 공주교육대 교수, 공주사업회 초대 회장 역임)은 우금티 전투 지역의 사적지 지정을 위해 서울의 여러 문화재 심의위원들을 열정적으로 방문하고 설명하여 그 결과 우금티가 국가 사적지로 빠른 시기에 지정되기도 했다(94년 3월 18일, 사적 제387호 지정). 이때 나는 공주기념사업회의 실무자로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발을 들여놓았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초창기에 주도하셨던 그분들이 이제는 안 계시고 어느덧 내가 이 글을 쓰게 되니 여러 감회가 앞선다.

1993년 공주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창립되어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도 공주의 한쪽에서는 여전히 동학농민혁명을 권력에 저항한 불온한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얼음 밟듯’ 조심스럽게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공주기념사업회 창립 초기에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기억에 남는다. 특히 공주농민회는 동학농민혁명의 계승자를 자임하고 행사의 많은 곳은 일을 맡아나섰다. 공주농민회가 주관하여 추모 제례에 통돼지를 올리기도 하

정선원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



였고, 정성이 가득 담긴 추모 제례의 풍성한 제사상은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공주기념사업회 창립 초기부터 공주의 일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던 생각은 우금티 전투는 전라도 동학군들이 와서 싸우다가 죽은 사건인데, 왜 공주사람들이 추모행사를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필자는 이런 인식을 바꿔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0여 년 동안, 토요일에 공주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동학농민혁명 관련 구전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 사건이었듯이, 공주에서도 우금티 뿐만 아니라 마을 구석구석에 많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학원에 들어가 공주전투를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여 2023년 「동학농민혁명 시기 공주전투 연구」라는 논문으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 대본영이 파견했던 후비19대대의 공주전투 계획은 1일이었으나 남북접 동학농민군의 치열한 항일 전쟁은 22일 동안 공주에서 일본군의 발목을 잡았고, 9차례의 큰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식 소총과 화승총의 대결에서 전봉준의 농민군은 우금티 전투에서 40~50차례 연속 공격을 시도했고, 북접 농민군은 송장배미 쪽에서 '10여 차례 육박혈전을 벌였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동안 30년 가까이 활동해 온 공주기념사업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공주시와 충청남도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앞으로 미정비된 우금티 사적이 전국의 학계·예술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미 있는 사적지로 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3년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이 되어 세계적인 역사와 사상이 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국가유공자로의 조속한 서훈과 함께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동학농민혁명을 계승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민주 세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평등의 정신과 함께, 분단 현실의 극복을 위한 통일 문제, 지구적인 환경기후 위기 극복 등에 '동학'에도 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학인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선원 : 문학박사, 중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재직하면서 1993년부터 공주 지역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에 헌신해 왔다.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시기 공주전투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저술로는 「공주와 동학농민혁명」(공저, 2005년/2015년)이 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은 1894년부터 1895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총 185건으로, 동학농민군이 기록한 회고록과 일기, 조선의 유생 등이 남긴 각종 문집, 조선의 관리들과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던 진압군 측이 생산한 각종 보고서 등이다. 이들 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고려대 도서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천도교 중앙총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 여러 기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정읍시(시장 : 이학수) 공동주최로 ‘동학농민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2023년 5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216차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가 확정되었다. 이후 유네스코로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문화재청(청장 : 최응천)이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를 전달받아 2023년 8월 29일에 열린 등재 기념식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 신순철)에 전달하였다.

1. 국민의례
2.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
3.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1

이날 기념식은 식전공연, 국민의례, 기념식, 식후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기념사(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대독),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대독),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윤 정읍시 의회 의장,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등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기록물 등재 공헌자에 대한 공로패와 유물 기증자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기념식에 이어서 대형 사발통문을 제작, 그곳에 서명(書名) 후 작성자의 핸드 프린팅 퍼포먼스와 정읍시립국악단의 창무극 「천명」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2



3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일시 2023. 8. 29.(화) 10시 30분 장소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앞 공동주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1

4. 기념사 /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5. 환영사 /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
6. 축사 / 이낙연 전 국무총리
7. 축사 /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8. 축사 / 이학수 정읍시장
9. 축사 /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10. 축사 / 고경윤 정읍시 의회 의장
11. 사발통문 작성-핸드 프린팅 기념촬영
- 12-13. 사발통문 작성-핸드 프린팅



12



13



14



15



16



17



18



14. 주제영상
 15~18. 사발통문 작성·핸드 프린팅
 19~20. 창무극 「천명」 갈라쇼 / 정읍시립국악단
 21~22. 「황토현 전승」 대목 / 송재영 명창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확산을 위한 공청회



지난 8월 28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확산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에 앞서 염영선(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1894년 반봉건·반외세를 주창한 동학농민혁명은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효시이지만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심각한 수준으로 그 가치를 계승하고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염영선 의원의 인사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의 축사에 이어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의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정신 계승·확산의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한운 전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이민석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학예사 등이 참여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 교육과정 반영에 대한 검토,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추진 사업 및 향후 계획 등을 토론했다.

2023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워크숍



지난 8월 30일~9월 1일 이틀간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주관으로 2023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네트워크 워크숍에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3평화재단, 노근리국제평화재단, 5·18기념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총 7개 기관·단체가 참가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관별 주요 현안사업 소개와 함께 향후 공동 협력 방안에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행사 참가자들은 부마민주항쟁 기념 시원석(始原石)이 있는 경남대학교와 4·19혁명 전국적 확산의 기점으로 작용했던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등을 방문하였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방문



새만금에서 열린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대원 1,600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방문하였다. 지난 8월 2일부터 7일 사이 하루 320명씩 다섯 차례에 걸쳐 기념공원을 방문한 스카우트 대원들은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 세계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기획된 전시관과 추모관을 돌아보고, 정음사에서 준비한 풍물굿과 국악 공연을 관람하였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울림의 기둥',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 등의 기념 시설물을 돌아보면서 '사발통문 만들기', '농악 체험', '퍼즐 맞추기' 등의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포르투갈 대원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원



말레이시아 대원



한국 대원



스위스 대원



노르웨이 대원 (사발통문 만들기 체험)



일본 대원



독일 대원 (사발통문 만들기 체험)



인도 대원



몰디브 대원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 워크숍



전국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헌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7개 기념사업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9~20일 양일간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과 황토현권역어울림센터 일원에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전국 16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 대표자 및 임원 5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위한 방안과 함께 기념사업 단체들의 상호 연대협력 방안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 전국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단체 명의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지난 7월 27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제16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신순철(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심의위원 구선희(前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김춘성(전도교 교서편찬위원회)·배향섭(성균관대학교 교수)·주영채(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정항미(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代 이선혁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와 사무관) 등이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과 참여자 직권등록을 포함한 26건을 심의, 참여자 21명과 유족 5명을 인정하였다.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개소 및 현판식



지난 6월 29일 기념재단 연구동에서 신순철 이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및 동학농민혁명 전공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개소 및 현판식이 열렸다. 특별법에 명시된 제반의 목적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기념재단은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2010년 재단 설립 때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마침내 지난 2월에 개최된 기념재단 5기 제3차 이사회(2023년 2월)에 연구소 설립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상정, 의결되었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2023년 4월 1일 정식으로 '동학농민혁명연구소'(소장 : 신영우)를 출범시켰다. 이후 연구소 운영규정, 사무실 마련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29일 연구소 개소 및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2023년 동학농민혁명 신진 연구자 워크숍



지난 6월 29~30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 교육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23년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세계기록문화로서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가치」(김양식 청주대 교수),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흐름과 쟁점 및 과제」(배항섭 성균관대 교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공공 역사화 방안」(서고운 동국대 석사과정), 「1894년 이전 무장 지역에서의 순화중 포결성 과정」(최지선 고려대 석사과정) 등의 발표에 이어 신영우 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축적된 동학농민혁명 연구 성과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침체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된 이번 워크숍에는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50여 명의 전공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2023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지난 8월 29일(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2023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 학술대회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세계화」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를 기념하여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개회식,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만열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서 「유

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현황과 과제」(김귀배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의장),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활용 방안」(김양식 청주대 교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세계화」(배항섭 성균관대 교수) 등이 발표되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은 신영우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허권(전 아태무형유산 사무총장), 임승범(문화재청 연구관), 안종철(5.18진상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재권(서강대 연구교수), 정근식(서울대 명예교수), 왕현종(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기획연재] 그림·박흥규 / 글·문병학

‘그림에 담긴 갑오년 이야기’ 코너를 신설하여 『녹두꽃』 통권 51호부터 54호까지 네 번에 걸쳐 박흥규 화가의 작품을 게재한다.

동학농민군, 다시 일어서다!

조선정부의 철병 요구에 불응한 일본군이 1894년 7월 23일 야밤에 경복궁을 무단점령(武斷占領)하여 국왕을 인질로 잡았다. 급기야 고종을 권좌에서 밀어내고 대원군을 섭정(攝政)으로 내세운 뒤 친일내각 수립, 청일전쟁 도발 등의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전라도 전역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을 단행하던 동학농민군이 국권을 유린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반일항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다시 일어서다.



삼례 가는 길, 2021, 80×120cm, 목판화

박흥규

화가, 1959년 전북 부안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였으며, 전북민족미술인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전 「들에서 여의도까지」(1999, 우진문화공간, 전주), 「겨울 여의도」(2011, 서신갤러리, 전주), 「新농가월령도」(2012, 서신갤러리, 전주)를 가졌으며, 2인전(박흥규·이기홍)으로 「지금, 여기, 리얼리즘」(2012, 차라리언더바, 전북 전주)이 있다. 초대전으로는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대전·만화 부문」(2010,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전주), 「빈집의 꿈」(2013, 국회의원회관), 「피노리 가는 길·동학농민혁명 120주년 판화전」(2014, 서신갤러리, 전주),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 기념전」(2015, 전남 장흥군), 「혁명은 순정이다」(2021, 오월미술관, 광주광역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2021~22, 신동엽문학관, 충남 부여) 등이 있다. 이밖에도 「힘전」, 「동북아와 제3세계미술전」, 「쌀전」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삼례집회, 2012, 23×25cm, 한지에 채색



나락 익기만 기다렸다, 28×42cm, 종이에 채색

문(問) — (심문관) 가을에 다시 일어난 까닭은 무엇인가?

공(供) — (전봉준) 일본 너희들이 개화라 칭하고 처음부터 일언반사(一言半辭, 한마디 말도 없이) 민간에 알림도 없고, 또한 격서(檄書, 벽에 붙이는 알림 글)도 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도성(都城, 임금에 있는 성)에 들어와 야반(夜半)에 왕궁을 격파(擊破)하여 임금을 놀라 움직이게 하였기에 초야(草野)의 사민(士民)들이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마음으로 분함을 이기지 못해 의병을 모아 너희 일본군을 내쫓고자 다시 일어섰다.

『전봉준공초』 1895년 2월 9일 동도죄인 전봉준 초초 문목 중에서



삼례들녘, 결전의 날이 오고 있다, 2012, 27×50cm, 한지에 채색

삼례들녘
새떼 날아오르다
젯빛구름 헤치고 까마귀떼 숫구치다

하늘이시여
척왜(斥倭) 척왜(斥倭)
반일항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묻노니

대답하라!
국권을 침탈한 자를 물리치려는데
어찌 하늘은 저리 회색빛으로 흐린가?

전사의 길!
삶과 죽음은 돌이 아니다
역사의 길,
죽어 다시 사는 길,
영원의 길,
우리는 이 길을 아니 갈 수 없다



전사의 길, 2021, 94×49cm, 한지에 수묵 채색



아, 우금티, 2014, 28×42cm, 종이에 채색

아, 우금티!
 우금티 능선 왜놈들의 포신과 총구가 불을 뿜는다.
 전투가 거듭되면서 골짜기마다 농민군의 주검들이 쌓여갔다.
 아, 찢겨진 깃발이여 시린 겨울나무여
 게걸스럽게 날아드는
 까마귀떼
 까마귀떼 까마귀떼
 까마귀떼 까마귀떼 까마귀떼 ….



아, 우금티 우금티
 쏟아지는 눈보라 뚫고
 왜놈들의 총구를 헤치고 달려나간 농민군이여
 우금티 골짜기마다 까마귀에게 눈알 뺏기고
 심장 파헤쳐진 채 나뉘는 벼들이여, 농민군이여.

시린 겨울산하에 고이 잠드소서
 님들의 송고한 꿈, 이 깊은 역사의 겨울을 넘어
 흰 어둠을 뚫고 새봄이 되면 새봄이 되면
 조선 산하 굽이굽이 꽃불로 피어 눈부시리라



하현달, 2012, 32×58cm, 한지에 채색



까마귀 떼, 2014, 145×48cm, 목판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강영희의 고손자 강성진



일시 2023. 7. 25(화) 12:00 ~

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초등학교 총동창회실

이번 호의 유족 인터뷰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강영희(姜永禧, 1837~1905) 님의 고손(高孫) 강성진(姜聲振, 1954~)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광주광역시 회장님을 모시고 진행하였다.

참여자 강영희는 진주강씨(晉州姜氏)로 1837년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월비月扉上촌)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성(羅州城) 전투와 영산강 자락의 '다시들 전투' 등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8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때 참여자로 등록되었다.

강영희 님의 고손자 강성진은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광주광역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129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7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광주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敍勳)을 위한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문 회장님 반갑습니다. 『녹두꽃』 독자님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안녕하세요? 『녹두꽃』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강영희의 고손자 강성진입니다. 지난 2007년에 제가 강영희 고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내용을 정리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저희 고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이듬해 참여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때 저도 참여자 유족으로 등록하여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7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으로 등록하여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로 거듭난 후 제가 광주광역시 유족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문 네, 회장님. 지난 7월 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윤상원홀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제129주년 기념 '동학농민혁명 광주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어려움이 많으셨죠?



답 네, 문 부장도 행사를 많이 해봐서 잘 아시겠지만, 막상 펼쳐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사도 참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지난 7월 7일 열렸던 학술대회도 준비가 만만치 않았 습니다. 학술대회 주제를 잡는 일부터 시작해서 적합한 분들을 섭외하는 일, 예산을 마련하는 일, 행사 장소를 섭외하는 일 등등 쉬운 일이 없었지만 참여자 유족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위에 뜻있는 분들이 행사 준비를 성심으로 도와주셔서 큰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종후 (사)동학농학농민혁명 전국유족회 대의원님을 비롯해서 행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제발표를 해주신 교수님들과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분들을 비롯하여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 그날 학술대회는 이상식(前 전남대 인문대학장,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교수님 기조발제에 이어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진 전국적인 반일의병이었잖아요?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 실패하여 결국 우리나라가 일제에 짓밟혔고,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반란사건으로 매도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이전까지만 해도 고부군수 조병갑을 몰아내기 위한 사건으로 인식되었어요. 일제 때는 물론이고 해방이 된 후에도 동학농민혁명을 고부군수 조병갑을 몰아내고자 일어난 일 정도로 인식했으니까 계속 반란사건

으로 매도되었지요. 그러다가 1994년 100주년 기념 사업이 전국 각 지역에서 전개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하기가 백 주년 이전까지만 해도 저도 사실은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광주·전남에서는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당시 전남대 인문대학장으로 재직하시던 이상식 교수님이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를 창립하여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문 네, 회장님.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동학농민혁명의 대중화는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가능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의 결과로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건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후 참여자 및 유족에 대한 조사와 등록이 시작되었고, 문체부의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된 후 전국의 유족분들과 지역단체 임원과 회원님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장님께서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선양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해 오셨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회장님의 고조부이신 강영희 참여자분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고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요?

답 네, 고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모님(박쌍림 朴雙林, 1897~1984)께 들었습니다. 제가 스무 살 무렵이었으니까 아마 그때가 1970년대 중반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때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지금처럼 얘기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지요. 쉬쉬하면서 내색하지 못했던 때였어요. 그래서였는지 할머니께서도 딱히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고, 나라에 큰 난리가 있었는데 그때 고조부님이 거기에 함께하셨다가 난리가 끝나던 무렵 그 뒤끝이 어찌나 무서웠는지 고조부께서 가족은 물론이고 딸과 사위까지 모두 데리고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원 운봉으로 피난살이를 갔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문 네, 조모님께 들은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저희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1520년대 강보승(姜保昇) 할아버지께서 나주 월비(月廨) 지금의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에 터를 잡고 정착하신 낙남조(落南祖)가 되십니다. 그리고 병자호란에 서우신의 종사관으로 양근에 머물면서 남한산성 구원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침내 화해가 성립되어 청군 군대가 노략 횡포를 일삼자 이들과 안변 남산에서 맞서 항거하다 순절하신 진사 강사남(姜泗南) 할아버지가 낙남조의 6세손입니다. 이분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고조부님의 7대조이시죠. 문과 급제자 승문정자 강세홍(姜世弘)의 손자이신 고조부님은 동학농민혁명(1894년) 당시 사회적으로 결코 멸시당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향리(鄕里)의 지식층으로서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셨습니다.

고조부님께서서는 주위의 농민들에게 합류를 권유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모님께서 제게 “갑오년에 큰 난리가 있었는데, 그때 고조부님이 참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이어서 고조부님께서서는 겨울철에 동학농민군이 나주로 진격할 때 사암 나무를 건너 영산강 유

역인 '다시들'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여하였고, 나주 용문산으로 진격하는 전투에도 참여하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투에서 패배하여 귀가하였는데 관군과 일본군이 하도 집요하게 수색하니 결국에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지리산 자락에 있는 운봉으로 가서 피난살이를 했다고 얘기를 해주 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피난처를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운봉으로 정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나주와 운봉에 집강소가 설치 되지 못 해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선택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운봉으로 피난을 가서 생활하면서 증조모께서 강대현(1897~1961)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나주로 돌아온 후 선산이 있는 나주군 공산면 남창리에 집을 짓고 8년 정도 살다가 고조부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조모님께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은 스무 살 무렵이었으니까 1970년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회 상황이 여의치 못해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4년도에 일간신문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유족신청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모님에게 들은 얘기를 근거로 2007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2008년에 저의 고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문 조모님에게 들은 얘기가 회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경로로 들어서 알게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네,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조부님의 연세가 58세로 고령이었다고 합니다. 고조부님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 큰아들 교수(제 증조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강영희 님의 묘소
(전남 나주시 공산면 남창리 151)

무안(오갈재)에서 한약방을 하셨는데 병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건수(당시 38세)와 (갯오 난리)동학농민혁명에 같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자손도 없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양자도 세울 수 없는 처지여서 후손도 없이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조부님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조부님 참여자 신청할 때는 증조부님을 신청서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저는 나름대로 관련 자료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근거를 찾아서 증조부님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신청하여 등록시켜드리는 것이 후손의 도리라고 생각되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문 회장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강영희 님의 유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저의 고조부님의 장남이 강교수(字는 석녀)입니다. 그리고 저의 조부님이 강대현(姜大鉉), 저의 선친 강정원(姜正遠) 그리고 저 이령입니다. 윗대부터 자식이 한 명밖에 없어 아주 손이 귀한 집안입니다. 그



래서 고손자인 제가 조모님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보완하여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문 네, 회장님. 고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연도가 2008년이었으니까 그때 회장님도 유족으로 등록되었겠네요?

답 네, 그렇습니다. 참여자와 유족으로 등록된 후부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된 지 15년 후인 지난 2019년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크게 승리한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제가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을 맡아서 일하면서 늘 부족하지만 참여자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문 회장님께서 광주·전남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을 아우르는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전국에서 펼쳐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드는 생각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답 그렇지요. 2019년 기념일이 제정된 후 매년 5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기념식은 2021년도에 경복궁 안 흥례문 앞마당에서 열린 기념식입니다. 매년 거행된 기념식이 우리 참여자 유족들에게는 다 감회가 깊을 수밖에 없지만 경복궁 안마당에서 열린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은 정말로 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점령하고 고종 임금을 인질로 잡고 국정을 농단하니까 경복궁의 일본놈들을 몰아내려고 다시 일어난 것이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 아닙니까?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127년 만에 정부 주최로 열린 기념식장이 경복궁 안마당이었으니까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었지요. 참여자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문 회장님께서 광주·전남 지역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 펼쳐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함께해 오면서 느낀 점이나 바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네, 우리 전라도 지역에 있는 무안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장성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여하지만 기념재단이나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충남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공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많이 참여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행사가 열리는 장소들이 대체로 유적지들로서 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전남 지역은 아직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한편으로, 보다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서린 유적지를 잘 정비해 내야겠다는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재단에서 많은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우리 전남 지역의 유적지를 정비하는 일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문 네, 회장님.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적지들을 환경을 정비하려면 어느 지역에 어떤 유적지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전국에 분포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인 2021년에도 전국에 분포한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에 대한 연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유적지 숫자가 378곳입니다. 이들 유적지마다 우선적으로 안내판을 세우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사업예산을 세우고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더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회장님, 얘기가 나온 김에 광주광역시 일대 유적지를 소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네, 광산구청 인근에 갑오년 당시 집강소가 설치되었던 '광주관아 터(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 일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당시 손화중 장군이 지휘한 광주 지역 동학농민군이 나주 수성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용진산 전투지'와 '침산 전투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민보군에게 학살당한 가슴 아픈 장소들입니다. 12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현장에 작은 추모비나 위령비 하나 세워져 있지 않아 후손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기념재단에서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방치



침산 전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산동 446-2) : 동학농민혁명 당시 광주 지역 동학농민군과 나주 수성군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된 유적지들에 대한 정비사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 네, 회장님. 회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여 빠뜨린 얘기나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특별히 첨언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인터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 네, 회장님. 오늘 긴시간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내내 건강하고, 하시는 일마다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미교포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방문기

A Korean-American's visit to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Park

Daniel Kang (대니얼 강)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Computer Science /
New Jersey,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스티븐스 공과대학, 컴퓨터 공학과 / 미국, 뉴저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방문(2023. 7. 27)

번역: 오진경(『녹두꽃』 편집자)

As a Korean American, my love for learning Korean history started at a young age. It was rooted in a desire to both understand my ancestral roots and also a fascination with heroic historical figures. I would sit in front of my bookshelf and read for hours about figures like Yi Sun-sin and Sejong the Great, wondering how such people came to be. However, as I moved to the United States and progressed through my education, I found that my exposure to Korean history became more limited, while American history dominated the curriculum. Despite my enthusiasm for exploring my cultural heritage, the lack of exploration in Korean history left me feeling disconnected from an essential part of my identity. By the time I got to college in the USA, the only recollections of Korean history I had left in my mind were filled with surface level material, mostly from documentaries and movies.

When I got the opportunity to visi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useum, I was excited to further fill in the gaps of my limited knowledge and naturally arrived with a very curious mindset. The inside of the museum was a stark contrast to the bright sunny weather outside. Immediately I felt a shift in the mood as various projectors and screens illuminated images that explained the historical backgrounds to the revolution. I was glad to be informed of the context behind the rev-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어릴 적에 한국 역사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의 뿌리를 알고 싶은 마음과 역사 속 영웅적인 인물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과 같은 인물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런 인물들이 되었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한국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고, 대신 교육과정으로 미국 역사를 배웠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알고 싶은 저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면서 저는 정체성의 본질적인 부분이 단절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마음에 남아 있는 한국 역사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것들로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동학농민혁명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호기심과 함께 설렘했습니다. 박물관 내부는 밝고 화창한 바깥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미지가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통해 보이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영상, 유물, 전시물들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동학농민군들이 남긴 많은 이야기와 유물들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임시변통으로 만든 죽창으로 무장한 수많은 농민군을 상상하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뤄 나가는 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지 가슴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추모관 벽을 가득 채운 이름들을 보면서 동학농민혁명

olution through various video clips, artifacts, and displays. As I walked throughout the museum's halls, I could know what the Donghak peasants army fought for and what their spirits were through the many stories and artifacts they left behind. Imagining the number of men armed with makeshift bamboo spears I wondered the amount of courage that one must have needed to proceed with these events. Seeing the walls filled with names in the memorial hall also allowed me to feel the weigh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sacrifices that the revolutionists made.

The one thing that stood out to me the most was the fact that many of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ere also responsible for Korea's revolution against Japan's imperial rule. Some of them were even significant figures and leaders that orchestrated large events throughout Korea's eventual independence. But it doesn't stop there. I was surprised to learn tha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ally became the groundwork that inspired many other revolutions that follows it such as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Gwangju uprising

This made me think that maybe the ideals of the historical contexts behind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ared a few similarities. The United States was also a nation that was

의 무계와 동학농민군의 희생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분이 또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혁명도 주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 중의 일부는 일제강점기로부터 한국이 독립하기 위한 큰 사건들을 이끈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1운동,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다른 혁명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어쩌면 한국과 미국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추구하는 이상이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또한 혁명으로 만들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저는 혁명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미 존재한 국가(한국)가 외세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미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를 이끌어 나간 분들의 마음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혁명에 나선다는 것은 스스로의 목표에 대해 완전하게 확신을 가져야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로 뭉쳐 전투에 나선 동학농민군상을 보면서 나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스스로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방문은 한국의 역사 이면을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해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잘 몰랐지만 그동안 제가 전혀 몰랐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에 대해 알게 되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박물관을 잠깐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제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좋은 배움의 장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built off of revolution and I was no stranger to learning about its significance. While becoming independent from a foreign occupation of an already existing nation is slightly different to creating a new nation, I believe that the hearts of those involved were of similar nature. To risk everything and fight, one must be completely sure of their purpose, and looking at the multiple statues of the peasants, all walking in unity, I was positive that they all knew the importance of what they were fighting for.

This was an incredible experience that allowed me to see a wider view behind Korea's history. I have to be honest, I didn't know what to expect at first but I was pleasantly surprised to learn so much about the context and significance of an event I never knew about. While this visit may have started as a light trip to the museum, I am thankful and happy to see it end as a memorable learning experience to take back to the States.



우연한 기회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대학생 직무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는데 재단의 업무를 도우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역사로 3·1운동 또는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얘기하는데 그 시작이 동학농민혁명이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 '동학농민운동'이 아닌 '동학농민혁명'으로 명칭이 바뀐 배경을 살펴보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반란 사건으로 극심하게 왜곡 축소되었다가 1994년 전후로 역사적 재조명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분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숙연해졌습니다.

이봉화 /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방문(2023.8.)

박지환 /
원광대학교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학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방문한 후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공원의 큰 규모에도 놀랐지만 그 안에 박물관을 비롯하여 야외에 울림의 기둥 등 각종 기념시설물이 잘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하면 학교에서 얼핏 배운 전봉준 장군이라는 외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방학기간에 기념재단 자료실 정리 등 일을 도우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사람이 하늘이다'는 동학사상을 바탕으로 농민(백성)들이 신분제 중심의 낡은 유교 사회를 만민평등 사회로 변혁시킨 "혁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동학농민혁명의 가치가 세계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역사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았던 저는 우리 역사를 그저 학교 시험을 위한 공부로만 접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또한 19세기 말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펼쳐진 농민운동으로 어렵듯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동학농민혁명을 민란 또는 민중봉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저 또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역사적 의미와 위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동학농민혁명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최초로 대승을 거둔 날인 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달력에 기록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큰 줄기인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많은 분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다형 /
원광대학교에서 경영학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방문(2023.8.)



최승우

군산대학교 IT정보제어 공학과

저는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후기에 서민들의 불평등과 착취로 인해 발생한 운동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동학농민혁명 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시된 유물과 자료를 보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흐름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깊이 있게 기술되어 동학농민혁명이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전시관(박물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안에는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동아시아와 세계사적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전시관(박물관)이 있다. 2022년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에 개관한 전시관의 규모는 연면적 1078.58㎡로 현재 국립박물관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전시관은 ❶민중의 힘으로 사회를 개혁하다 ❷전국에서 민중·민족 항쟁이 일어나다 ❸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❹동학농민군의 고난과 희생을 되새기다 ❺한국 근대 민주정신의 큰 줄기가 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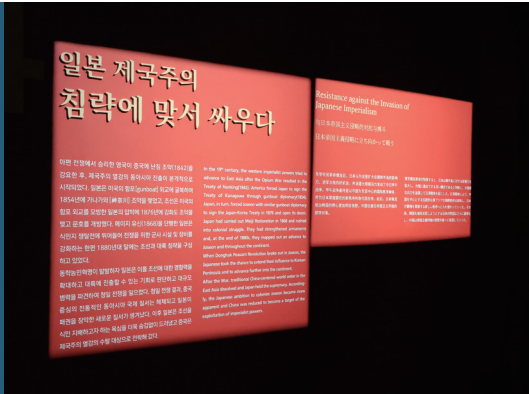
이번 호에는

❸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파트를 소개한다.



Part. 3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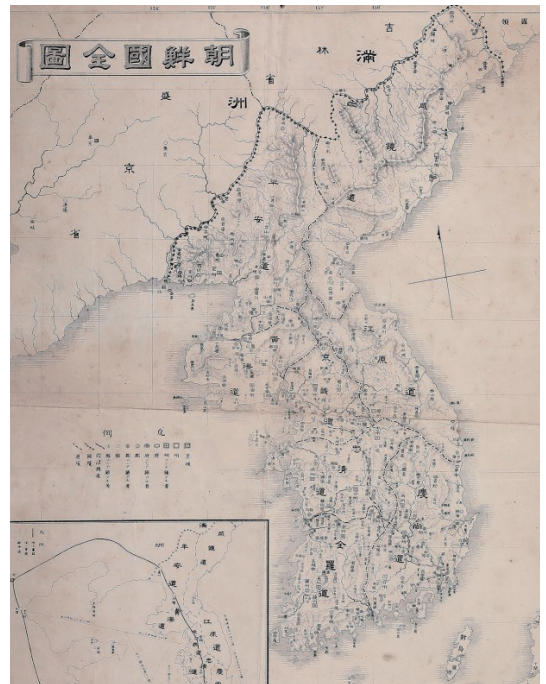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중국에 난징 조약 (1842)을 강요한 후,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함포 외교에 굴복하여 1854년에 가나가와(神奈川) 조약을 맺었고, 조선은 미국의 함포 외교를 모방한 일본의 압박에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했다. 메이지 유신(1868)을 단행한 일본은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어 전쟁을 위한 군사 시설 및 장비를 강화하는 한편 1880년대 말에는 조선과 대륙 침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대륙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여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그 결과,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해체되고 일본이 패권을 장악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다.

일본의 전쟁 준비와 농민의 저항

일본군은 1894년 7월 23일부터 전신선을 보호하고 농민군을 탄압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을 잇는 주요 도로에 군사 작전용 물자 관리 시설인 병참부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의 침략 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자 7월 말부터 조선 전국에서 민중과 동학농민군의 항일무장투쟁이 시작되었다. 8월부터는 일본군이 전신선과 병참부를 설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신선 절단, 전신주 파괴, 병참부 공격 등 반일 투쟁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 54.5×38.5cm, 1894.

일본 시사신보사(時事新報社)에서 발행한 지도로 조선 전국을 정밀하게 측량해 만든 근대 지도이다. 우리나라를 주(州), 부(府), 군(郡), 현(縣)으로 구획해 각 도시를 자세히 표기한 후 불법으로 일본이 가설한 부산(釜山)-경성(京城) 간의 경부 전선을 표기하였다. 부록에는 중국 상하이[上海]까지 연결된 육상전선(陸上電線)과 함께 일본까지 이어지는 항해선(航海線), 해상전선(海上電線)이 동아시아 삼국을 잇고 있다.

조선에서 시작된 청일전쟁



조선 정부는 1894년 6월 초순에 농민군과 전주화약을 맺은 이후 청나라와 일본 양국에 군대를 물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대륙 진출을 목표로 한 일본군은 조선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고 7월 23일 경 북궁을 강제로 점령한 후 이틀 뒤인 25일에는 선전 포고도 없이 남양만 풍도 앞바다에서 청나라 군함 2척과 청나라 병사들을 태운 영국 상선을 기습하여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성환전투(7월 29일), 평양전투(9월 15일)를 거쳐 청나라군이 압록강 건너로 후퇴할 때까지 조선은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 정부뿐만 아니라 민중은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청일전쟁 전개도와 주요 전투



1 풍도해전(1894.7.25.)

전투로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청나라와의 전쟁을 위해 1만여 명에 가까운 병력을 이미 조선에 상륙시켰고, 선전포고도 없이 청나라군을 수송하던 군함과 영국 국적의 선박을 공격했다.

2 성환전투(1894.7.29.)

청일전쟁 최초의 육상 전투로 천안시에 있던 성환역 부근에서 벌어졌다. 전투는 7월 29일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으며 초반에는 일본군 수십 명이 전사하기도 했지만 결국 청나라군이 크게 패하고 평양으로 퇴각했다.

3 평양전투(1894.9.15.)

일본군과 청나라군 사이의 두 번째 육상 전투로 청일전쟁의 전환점이 된 전투이다. 일본군이 크게 승리했고 청나라군은 압록강을 건너 후퇴했다. 이후 일본은 조선의 국내 정치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다.

4 황해해전(1894.9.17.)

청일전쟁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해전으로 평양 전투 직후 압록강 하구에 있는 다동거우[大東溝] 해역 일대에서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청나라의 북양 함대를 물리치고 제해권을 확보했으며 북양 함대는 위순항으로 물러났다.

5 압록강전투(1894.10.25.)

평양 전투에서 패배한 청나라군은 압록강 북쪽 기슭을 따라 길게 진지를 구축했다. 9월 하순에 의주에 도착한 일본군은 뗏목 위에 널빤지를 깔아 다리를 만든 후 10월 25일에 압록강을 건너 청군을 격파하고 다음 날인 26일에는 중국 단둥에 있는 주련청[九連城]을 점령했다.

6 위순[旅順]전투(1894.11.21.)

일본군은 압록강 전투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1894년 11월 21일 위순항을 점령했다. 위순을 점령한 날부터 4일 동안 일본군이 약 2만 명에 달하는 병사와 시민을 학살했고 여기에는 부녀자와 유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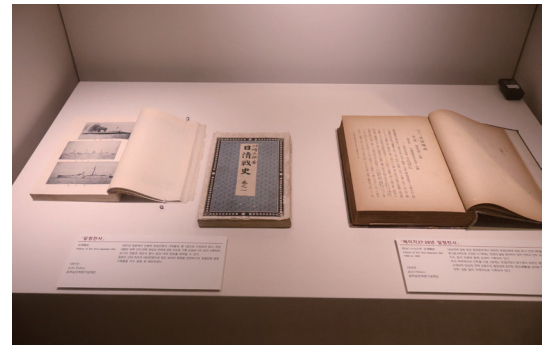
7 웨이하이[威海]전투(1895.1.20.~2.12.)

청일전쟁의 마지막 주요 전투이다. 일본은 육해군 공동 작전을 펼쳐 북양 함대의 거점과 잔존 함선들을 파괴했다. 이후 잉커우[營口] 전투를 거쳐 시모노세키[下關]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청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일본군 개선문 판화 35×70.6cm, 189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894년 9월 일본인 화가 타케가와 세이키치가 청일전쟁을 선전하러 발행한 다색목판화 가운데 하나이다. 청일전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성환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군이 1894년 8월 5일 마포 만리창 일대에서 거행한 개선식을 표현하였다. 한일 양국의 국기가 걸린 급조한 개선문 앞에 도열한 일본군을 서양인처럼 묘사한 점이 특징으로, 일본은 자국의 승전 소식을 목판화로 다수 제작하여 제국주의를 위한 보도와 선전에 적극 활용하였다.



『일청전사』 15×22.8cm, 189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897년 일본에서 간행한 청일전쟁의 기록물로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내용은 양국 간의 전투 양상과 전력에 관한 것으로 각종 도표와 사진 등이 수록되어 당시의 전황과 개선식 행사 등의 여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은 근대 최초의 대외전쟁으로 얻은 승리의 영광을 선전하고자 청일전쟁 관련 기록물을 다수 발행·배포하였다.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를 찾아서

일시 2023. 8. 23.(수)

장소 서울 종로구 서린동



전성준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

문 안녕하세요. 이번 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지역대담>에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전성준 사무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총장님, 먼저 『녹두꽃』 독자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녹두꽃』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전성준입니다. 저는 정읍에서 태어나 2013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님의 역사적 위업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에서 실무 책임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나름대로 힘을 보태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전봉준'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 총장님을 만나면 늘 제 머릿속에는 전북 정읍시 이평면 조소리 전봉준 장군 고택 인근 '전봉준 장군 단비' 주변의 잡풀을 제거하시던, 지금은 고인이 된 총장님의 선친 전 만 자 길 자 어르신의 굽은 등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푸른 이끼가 들어붙은 "갑오민주창의통수천안전공봉준지단(甲午民主倡義統首天安全公塚準之壇)" 비석도 함께 떠오릅니다. 총장님 선친께서 돌아가신 후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총장님께서 단비를 살피고 계시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정읍과 부안·고창·천안전씨 문중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봉건 지배와 일제 침탈에 맞선 근대사의 선각자 전봉준 장군의 정신을 숭모하기 위해 '전봉준 장군 단비 설립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전



전봉준 장군 추모제(정읍 이평면 / 전봉준 장군 단비)

쟁으로 아쉽게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진 후 단비 설립을 위한 모금이 다시 추진되어 혁명 1주갑이던 1954년에 마침내 전북 정읍시 이평면 조소리에 단소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아버지께서 2006년 작고하실 때까지 묘지를 관리하는 한편 매년 전봉준 장군 기일에 제사를 모셔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부족한 제가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사단법인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장군님의 선양사업과 묘역 관리 및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0주년 이후부터는 매년 전봉준 장군께서 순국하신 4월 24일 단소에서 장군님 순국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문 총장님 선친께서 관리해 온 전봉준 장군 단비(허묘, 빈 무덤)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894년 겨울,

공주 우금터 등 전국에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 등에게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한 후 조선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급기야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났고, 을사늑약(1905) 일제강점(1910)으로 이어져 민족적 암흑기를 맞습니다. 시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시기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은 동학농민군 측의 기념사업이 아니라 농민군을 진압한 관군 측 장졸(將卒) 순의비(殉義碑)나 충절비(忠節碑)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동학농민군 측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최초 기념 시설물로 건립된 것이 바로 전봉준 장군 단비입니다. 단비가 건립된 경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봉준 장군 단비(전북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산 10-3)



답 네,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 장군께서 살았던 고택지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소나무 숲에 장군님의 작은 묘지(전봉준 장군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가 있고, 묘지 앞에 “갑오민주창의통수천안전공봉준지단(甲午民主倡義統首天安全公琫準之壇)”라고 새겨진 5척 가량의 작은 돌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묘소와 단비는 전봉준 장군의 위국단심을 기리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60주년이던 1954년 11월 15일 천안전씨 문중에서 설단하였고, 단비의 문구는 김제 출신 사학자 김상기 박사가 명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4년 5월에 건립된 ‘갑오민주창의통수천안전공봉준지단 기(甲午民主倡義統首天安全公琫準之壇 記)’와 그 이듬해인 2005년 5월 세워진 ‘설단공적기(設壇功績記)’에 따르면 “6·25 동란(한국전쟁)이 멈춘 지 1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천안전씨 종친들이 장군님의 위국훈(爲國魂)을 기리기 위해 1954년 11월 15일 ‘갑오민주창의통수천안전공봉준지단’을 창동리에 건립하고, 추도식을 거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 네, 저는 1983년 봄에 단비를 처음 답사하였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제가 몸담고 있던 문학동아리에서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었는데, 그때 이곳에 들렀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단비 주변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에 다 허물어져 가는 작은 묘지 그리고 그 앞에 키 작은 비석 하나가 더없이 쓸쓸하고 적막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대중적인 역사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후 이곳 단비에 수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섰는데..: 총장님께서 이들 시설물 건립 경위를 잘 알고 계시지요?

답 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이전에는 사람들이 단비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었던 1994년 5월 11일 천안전씨 문중에서 '전봉준 장군 유적보존회'를 구성하였고, 뜻있는 종인들이 성금을 모아 이곳 임야를 구입하여 묘역을 확장·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동학농민혁명 110주년이던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후 천안전씨 문중의 뜻있는 종인들의 성금으로 다시 현재의 모습으로 보강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묘역에는 단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갑오민주창의문'이라는 이름으로 「무장포고문」이 한글로 해석되어 새겨져 있고, 그 왼쪽에는 전봉준 장군 얼굴(판화 형태)과 새야새야 파랑새야 라는 노랫말이 새겨진 조각상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갑오민주창의통수천안전공봉준사적비(甲午民主倡義統首天安全公奉準史蹟碑)가 세워져 있고, 단비와 봉분 앞쪽에는 전봉준 장군이 13세 지었다는 한시 「백구(白鷗)」와 「운명(殞命)」 시비(詩碑)가 서 있습니다.

문 사단법인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에서 매년 4월 24일 전봉준 장군 순국일에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지요?

답 전봉준 장군께서 순국하신 날이 1895년 음력 3월 30일, 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 24일입니다. 문중에서 단을 설립한 1954년부터 제 부친께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까지 장군님의 기제사를 매년 음력 3월 30일 집에서 모시고, 당일 새벽에 단소에 가서 묘지 제사를 모셨습니다. 지금도 달구지에 제사 음식을 싣고 아버지와 함께 다녀왔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한 천안전씨 대종회 차원에서 정읍 황토현 기념일(당시에는 매년 5월 8일을 기해 기



념행사 거행)에 단소에서 종인들을 모시고, 시향제를 지냈습니다. 후에 1994년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봉준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 일환으로 '유적보존회'가 출범하여 매년 양력 4월 24일을 장군님의 제삿날로 정해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단법인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로 확대 개편, 장군을 기리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문중에서 지내는 기존 시향제를 국민적 추모제로 확대하여 매년 양력 4월 24일에 추모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문 네, 지난 2018년 4월 24일 전봉준 장군 순국일에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서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상이 제막되기까지 총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 가운데, 종로 네거리에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이 건립되어 감회가 남다르시죠?

답 네, 2017년 봄에 설립된 사단법인 전봉준장군 동상건립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이란 중책을 맡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 4월에 종로 네거리에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을 건립하였는데, 후손으로서 감회가 벅차고 새롭습니다. 그리고 동상 건립을 위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으로부터 서린동 그 자리, 현재 동상이 세워진 땅을 무상으로 받아낸 문 부장님의 공로를 내내 잊지 않고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동상은 정부나 기업 협찬을 받지 않고 시민 단체와 일반 시민들의 성금으로 세웠는데, 민의 대표 녹두장군 동상을 국민 성금으로 세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인 종로 네거리에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이 건립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장군님의 혁명정신과 그 가치를 오늘에 계승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모두가 나서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전북 정읍시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2011년부터 매년 5월 동학농민혁명 황토헌기념제 때 동학농민혁명 대상을 시상하는데 총장님께서 제11회 대상을 받으셨지요?

답 저는 정읍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다니면서 매년 열리는 황토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시절 아버지를 따라 전봉준 장군의 묘역에서 제사에 참여하였으며, 아버지께서 작고하신 후에 전봉준 장군 후손(양증손자)으로서 전봉준 장군의 부친 묘가 있는 선영묘 및 단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제사 및 추모제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봉준 장군 유적보존회 사업을 이어받아 2013년부터 사단법인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로 재단을 설립하여, 확대개편을 하였으며,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고 전봉준 장군을 기리는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사단법인 전봉준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전국에 흩어진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를 한곳으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 및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종로 한복판에 전봉준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자 사단법인 전봉준장군 동상건립위원회를 설립하는 일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일 등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동상 건립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아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부터 사무직원 참여, 동상 건립기금 마련, 동상 제작과정 참여 등등 동상이 건립되기까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해 온 일을 평가하여 부족한 저를 영광스러운 제11회 동학농민혁명 대상자로 선정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조금 멋쩍으면서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마땅히 받아야 할 분이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해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사)전봉준 공동대표로서 다양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및 계승·발전을 위한 기념사업을 직접 추진하시거나 참여하시고,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기여해온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총장님께서 그동안 기념사업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 또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신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녹두꽃』 지역대담에 초청을 해주고, 부족한 저의 의견을 경청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역 및 단체를 방문하고, 여러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저의 소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2008년 ‘화해와 상생’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전국 기념대회 때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충남 태안군 앞바다 기름 유출로 태안 군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을 때 ‘화해와 상생’이란 슬로건으로 행사를 개최했을 때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하여 나름대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학농민의 전국화에 기여한 것이 뜻깊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한편 초기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제약된 한계 때문에 지역 간의 경쟁 및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점으로 사업의 방향을 이전과 이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주년 이전에는 지역중심으로 사건의 특성에 맞게 자생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후에는 지역 중심에서 전국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되어 발전하였습니다. 따라서 100주년 이후 전국적 관심이 급증하여 선의의 경쟁보다는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지역 간에 많이 표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 단체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정신을 반하는 행동이 드러나기도 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점들을 극복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전국화하고 세계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문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 빠뜨린 얘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저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던 2014년 『전북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독립지사나 애국지사처럼 서울 한복판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 건립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 말이 2018년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종로 네거리에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건립’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녹두꽃』 지역대담에서 또 말이 씨가 되라고 “전봉준 장군 역사공원이 서울, 경기 지역에 반드시 조성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전봉준 장군 역사공원을 건립해서 동학농민혁명의 드높은 이상을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와 세계 역사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귀한 자리 마련 해주신 기념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 총장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학술 강연회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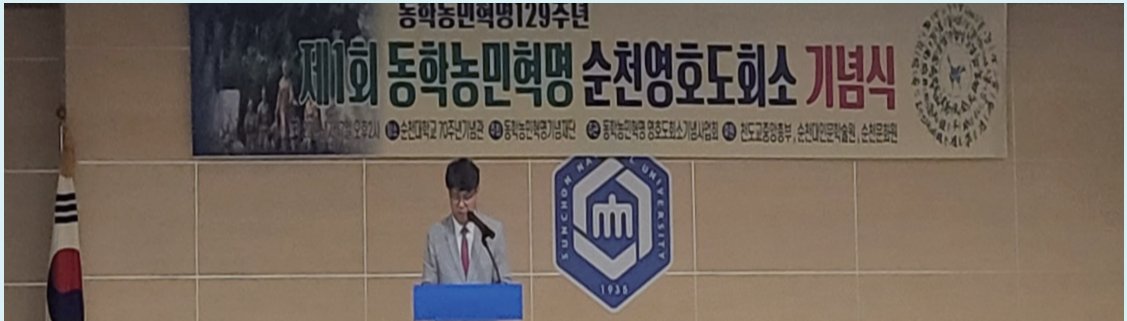
지난 6월 27일 경북 예천군 예천청소년수련관에서 「가보세, 사랑이 곧 하늘! 1894년 예천의 구국항전」이라는 주제로 예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학술 강연회가 열렸다. (사)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최, 예천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최 측 대표 인사말, 내외귀빈 축사, 동학농민혁명 주제 시상송, 학술 강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축하공연, 기념식에 이어진 학술 강연회는 「동학농민혁명 바로 알기」(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예천 동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김영진 경희대 교수)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3 동학농민혁명 광주학술대회



지난 7월 7일 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윤상원홀에서 광주동학농민혁명유족회 주최로 「광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계승과 보존」이라는 주제 아래 '2023, 동학농민혁명 광주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상식(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前전남대 인문대학장) 교수의 「동학농민혁명의 명예회복과 서훈 추진」이라는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주제발표는 「나주 북동부에서 희생당한 동학농민군」(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방안」(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순으로 이어졌다.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주영채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주제별 토론회는 나주목향토학연구회 나천수 회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문병학 기획운영 부장이 각각 토론하였다.

제1회 동학농민혁명 순천영호도회소 기념식



지난 7월 7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기념사업회(대표 이하윤) 주최로 '제1회 순천영호도회소 기념식'이 열렸다. 동학농민혁명 129년을 기념하고, 영호도회소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주용덕 천도교 종무원장, 강성호 순천대 인문학술원장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는 1894년 6월 전라도 금구 출신 김인배(1870~1894) 대접주가 전라도 순천·광양·여수 그리고 경상도 하동·사천·진주 등 지리산 남서부 지역 내륙과 해안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연계시켜 반봉건, 반일항쟁을 총괄할 목적으로 설립한 지휘본부였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 '순무선봉진등록'의 기록에 의하면 영호도회소의 규모가 동학농민군은 10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서울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2023년 7월 23일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서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천도교서울교구 공동주최로 서울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하는 행사가 열렸다. 「동학농민혁명은 항일전쟁이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진행된 이날 답사는 경복궁을 비롯하여 2018년 4월 24일 건립한 '녹두장군 전봉준'(서울 종로구 서린동) 동상, 1898년 6월 2일 해월 최시형(동학 2대 교주) 선생이 재판을 받고 '좌도난정(左道亂正)'이라는 죄목으로 처형당한 순교 터 '서울 종로구 서소문 좌포도청 터' 등을 답사하였다. 지난 4월에 창립한 서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정기적으로 서울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를 추진하여 서울 지역 유적지를 발굴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녹두꽃, 다시 피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념공원 생태탐방 '녹두모험단', 미션을 해결하는 역사탐방 '1894년, 녹두꽃의 기억', 박물관 온라인 교육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박물관 스스로 학습 '1894! 가보세 갑오세', 기념관 프로그램 '창수야, 놀자!,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찾아라'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정읍 꼬마마을어린이집 (2023. 6. 2.)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고창여자고등학교 (2023. 6. 7.)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정읍 동신초등학교 (2023. 6. 13.)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익산, 어양중학교 (2022. 6. 30.)



기념공원 <녹두모험단>

정읍 꼬마마을 어린이집 (2023. 6. 9.)



기념공원 <녹두모험단>

정읍 성원어린이집 (2023. 8. 11.)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2023. 7. 27.)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2023. 8. 1.)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2023. 8. 8.)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2023. 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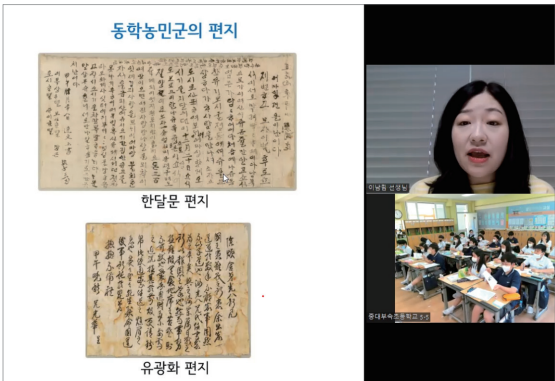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2023. 8. 13.)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2023. 8. 14.)



박물관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온라인)
서울 중대부속초등학교 (2023. 5. 17.)



박물관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온라인)
당진 신촌초등학교 (2023. 6. 13.)



기념관, 생생문화재

녹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2일(2023. 6. 24~6. 25.)



기념관, 생생문화재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녹두장군 이야기(2023. 7. 27.)



기념관 <1894 시간여행>

정읍 왕신여자고등학교 (2023. 8. 25.)



기념관 <1894 시간여행>

부안 하서중학교 (2023. 8. 31.)



기념관 <2023 하계 동학농민혁명바로보기, 교원직무연수>

1박2일(2023. 8. 9~10.)



2023년 교육체험·해설 프로그램

박물관 / 기념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 구분 | 프로그램명 | 대상 | 장소 | 일정 |
|-----|----------------------|----------------|----------------------|-------|
| 상설 | 1894! 가보세 갑오세 | (전국)모든 대상 | 박물관 | 1~12월 |
| 온라인 |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 (전국)초등 4~6학년 | 온라인 (ZOOM) | 3~11월 |
| 관내 | 녹두모험단 | 유아 만4세 이상/ 단체 | 교육관, 기념공원, 전시관 | 4~11월 |
| | 녹두탐험단 | 초등 1~3학년/ 단체 | | |
| | 1894년, 녹두꽃의 기억 | 초등 4학년~ 고등/ 단체 | | |

기념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 구분 | 프로그램명 | 대상 | 장소 | 일정 |
|------------|-------------------------|------------------|-------------------|-------|
| 관외 |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전국)초·중·고 | 해당 학교 | 3~12월 |
| 관내 | 창수야, 놀자! | 만5세 이상 ~ 초등 3학년 | 기념관, 기념공원 | |
| |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찾아라 | 초등 4학년 ~ 고등 | | |
| 답사 | 1894 시간여행 | (전북)중·고생 | 기념관, 전북 유적지 | 9~11월 |
| | 녹두 꾸러기 탐험대 | (전북)초등 5·6학년 | | |
| 교원 직무연수 |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 (전국)초·중등 교원 | | 7~8월 |
| 생생 | 녹두 장군과 함께하는 1박 2일 | 일반인 | | 6~9월 |
| | 파랑새를 찾아서 | 다문화 가정 | | 9월 |
| |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녹두 장군 이야기 |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 | | 7월 |
| | 꿈을 품은 박물관 | (전국)중등 | | 10월 |

박물관 / 기념공원 해설 프로그램

| 구분 | 해설 내용 | 대상 | 일정 |
|------|-----------------------|---------------|----|
| 기념공원 | 기념공원 내 조형물, 생태해설 등 | 모든 대상 (단체) | 상시 |
| 박물관 | 박물관 전시 | | 상시 |
| 기념관 | 기념관 전시 | | 상시 |

※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1894.or.kr>)를 참고하세요. 문의: 063. 530. 9400

| 보도일 | 언론사 | 기사 제목 |
|--------------|--------|--|
| 2023. 06. 01 | 동양일보 | 미술로 만나는 동학농민혁명, 그날의 기억 |
| 2023. 06. 02 | 뉴시스 | 동학농민혁명기념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 전주서 열려 |
| 2023. 06. 03 | 전북중앙 | 김갑련 개인전 '꽃밭' 내일부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록 |
| 2023. 06. 03 | 이데일리 | 세계 인정받은 한국 민주화 기록엔 무엇이 담겼을까[알면 쉬운 문화재] |
| 2023. 06. 04 | 전북도민일보 | 동학농민혁명 최초 전승지 황토현전적 종합정비 실시 |
| 2023. 06. 04 | 국제뉴스 | 혁명의 미술-동학농민혁명 129주년 국제포럼 |
| 2023. 06. 04 | 전북일보 | 동학농민혁명 129주년 기념특별전, 전주동학농민혁명 세계혁명예술제 개최 |
| 2023. 06. 06 | 새전북신문 | 동학농민혁명의 함성... '혁명 그 너머의 것들' |
| 2023. 06. 06 | LG헬로비전 | 인정받지 못한 영웅 '동학농민군', 유공자 서훈은 제외 |
| 2023. 06. 09 | 전북도민일보 | 부안남초등학교 마실탐험대 꼬마 동학군 재현 |
| 2023. 06. 15 | 전북일보 | '갑오군정실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
| 2023. 06. 15 | 전북중앙 | 전주(완산주)는 동학혁명정신의 출발이자 완성의 땅 |
| 2023. 06. 21 | K스피릿 | 대일항쟁의 길, 청년 김창수에게 묻다, 영화 "대장 김창수" |
| 2023. 06. 22 | 새전북신문 | 잊혀진 구국영웅 조선의병 선양하자 |
| 2023. 06. 26 | 연합뉴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튜브 영상 공모전...총상금 2천만원 |
| 2023. 06. 27 | 경북신문 | 동학아 놀자... "동학으로 경주가 대단한 곳임을 알게 됐어요" |
| 2023. 06. 28 | 한겨레 | 동학 봉기는 항일구국활동이 아니다? |
| 2023. 06. 29 | 노컷뉴스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개소 |
| 2023. 06. 29 | 전북일보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개소 현판식 개최 |
| 2023. 07. 06 | 신아일보 | 홍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국 이모티콘 대회 작품 접수 |
| 2023. 07. 06 | 컨슈머타임즈 | 장흥군, 동학영웅 '이소사' 주제 창작음악극 공연 |
| 2023. 07. 09 | 전남일보 | '광주 동학농민혁명의 계승과 보존' 학술대회 개최 |
| 2023. 07. 09 | 한겨레 | "동학혁명 계승 위해 광주에 기념관·대학연구소 개설 필요" |
| 2023. 07. 10 | 한겨레 |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 첫 기념식 가져 |
| 2023. 07. 13 | 프레시안 | 심덕섭 고창군수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발전 시켜야" |
| 2023. 07. 16 | 광주일보 | 2차 동학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으로 명예회복을 |
| 2023. 07. 20 | 한겨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라 |
| 2023. 07. 23 | 전북일보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라 |
| 2023. 07. 24 | 오마이뉴스 | 동학농민혁명은 항일전쟁인 까닭은 |
| 2023. 07. 25 | 한겨레 | 동학군 모지 1700기에 맞힌 사연...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 2023. 07. 26 | 연합뉴스 |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영식 명예관장, 기념관에 유물 기증 |
| 2023. 08. 01 | NEWSIS | 정읍에 온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동학농민혁명-선비문화 체험 |
| 2023. 08. 01 | 전북중앙 | 31개국 2,600명 정읍 동학농민혁명공원 등 찾아 |
| 2023. 08. 10 | 스포츠서울 | 홍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제5회 자작고개 동학혁명 전국회화대회' 개최 |
| 2023. 08. 14 | 포인트데일리 | 고창군,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전시 |
| 2023. 08. 14 | 데일리임팩트 | 고창군,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전시 |
| 2023. 08. 14 | 뉴스핌 | 고창 문화의전당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전시 |
| 2023. 08. 17 | LG헬로비전 | 동학농민혁명 이끈 '전봉준 장군' 서훈 불발 |

| 보도일 | 언론사 | 기사 제목 |
|--------------|--------|--|
| 2023. 08. 21 | 더팩트 |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산뜻한 새 단장 |
| 2023. 08. 22 | 뉴스1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정읍서 열린다 |
| 2023. 08. 22 | 국민일보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세계화 작업 박차 |
| 2023. 08. 22 | 뉴스1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열린다 |
| 2023. 08. 22 | 새전북신문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념행사 |
| 2023. 08. 22 | 전북일보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열린다 |
| 2023. 08. 24 | 전라일보 | 김성주,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학술 토론회 개최 |
| 2023. 08. 26 | 연합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29일 정읍에서 |
| 2023. 08. 27 | 전북일보 |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당언" |
| 2023. 08. 27 | 전남일보 |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 서훈해야" |
| 2023. 08. 27 | 한국일보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열린다 |
| 2023. 08. 28 | 세계일보 | '동학혁명 기록물' 가치 확산 나선다 |
| 2023. 08. 28 | 전북일보 | 동학농민혁명, 인류의 유산으로 꽃피다 |
| 2023. 08. 28 | 새전북신문 | "동학농민혁명 정신 확산해야" |
| 2023. 08. 28 | 전북도민일보 | 염영선 도의원,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확산 위한 공청회 개최 |
| 2023. 08. 28 | 프레시안 | 전북부터 동학혁명의 정신 계승·확산해야...조례 필요성 제안 |
| 2023. 08. 28 | 전라일보 | 염영선 도의원,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확산 위한 공청회 개최 |
| 2023. 08. 29 | 동아일보 |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
| 2023. 08. 29 | KBS |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열려 |
| 2023. 08. 29 | 뉴스1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열려 |
| 2023. 08. 29 | YTN | 동학혁명, 세계기록유산 등재... "원통합니다" 한 맺힌 편지도 |
| 2023. 08. 29 | 한겨레 |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열려 |
| 2023. 08. 29 | 뉴스1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29일 정읍서 |
| 2023. 08. 29 | CBS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열려 |
| 2023. 08. 29 | 더팩트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개최 |
| 2023. 08. 29 | 전북중앙 | '동학농민혁명정신' 국내 넘어 세계로! |
| 2023. 08. 29 | 연합뉴스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성황 |
| 2023. 08. 29 | 전북도민일보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개최 |
| 2023. 08. 29 | 전북일보 | "세계인의 소중한 기억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보존·관리 강화해야" |
| 2023. 08. 29 | 프레시안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개최 |
| 2023. 09. 02 | 연합뉴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달 말까지 유물 공개 구입 |
| 2023. 09. 03 | 전북도민일보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23년 유물 공개 구입 추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 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신청 대상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외손 포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부터 봉건체제 개혁 및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봉기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등록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가.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참여자와 신청인의 유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제출 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 온라인 및 FAX 접수는 받지 않음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063-530-9434 ~ 5
 - 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 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

접수기간

2023. 08. 21 ~ 2024. 01. 19

18:00 까지

참가 대상

공모 희망자 누구나(학생, 개인, 단체 응모 가능)

시상 내역 및 상금

| 구분 | 당선자 | 총상금 | 비고 |
|------|-----|---------|----------------------|
| 대상 | 1 | 3,000만원 | 단편 웹툰 (완결본) |
| 최우수상 | 1 | 2,000만원 | |
| 우수상 | 1 | 1,000만원 | |
| 장려상 | 10 | 1,000만원 | 인스타툰(완결본) 상금 각 100만원 |

※ 총 상금 7,000만원 / 개인 및 팀으로 참가 가능

수상자 발표

2024. 02. 19

공모 주제 및 소재

아래 3개 주제 중 선택

| 구분 | 내용 |
|----|---|
| ① | 동학농민혁명 관련 추천 도서 중 한 권 선정 후 전체 또는 일부 내용 웹툰으로 창작 - 추천 도서: 이광재 작『나라 없는 나라』, 송기숙 작『녹두장군』 |
| ② | 2022년 동학농민혁명 공모전 웹소설 분야 수상작 중에서 웹툰으로 창작 |
| ③ |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변용해 창작 (판타지 장르 가능) -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

작품 형식

| 완성화 스토리 분야 | 분량 및 규격 |
|------------|------------------------------------|
| 단편 웹툰 | 스크롤 형태 최소 3화 이상 화당 60컷 이상 완결본 |
| 인스타툰 | 편당 15컷 이상 30컷 이하 완결본 에피소드 2편 이상 |

공식 홈페이지

www.동학농민혁명스토리공모전.kr

문의처

T.070-4788-5533 E.donghak2023@naver.com

